

산도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발에 감추인 보화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예가소식	12

■ 주현절 첫째 주일/2016년 1월 10일

'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발간합니다.

“고마운 사람들”

예배의 기도 중 '형제를 먹이는 사랑으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라는 기도가 있다. 형제를 먹이는 것은 먼저 밥을 먹이는 것이다. 요즘에는 먹거리가 너무 많아 서 밥을 먹인다는 것에 대해 가치가 많이 떨어진 듯 하지만, 먹어야 사는 사람에게 먹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먹거리를 건강하게 먹는 일에 무게 중심을 두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예가교회는 여전히 형제에게 밥을 먹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

주일 식탁에서 아이들의 교회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예가교회의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다른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사이좋게 놀고 재미있게 지내고 언니 오빠들을 잘 따르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자는 정도 외에는 다른 교육이 없다. 그러나 학생부와 청년부에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교육 프로그램이 성찬대접이다. 예가교회의 기도와 가치에 따르면 학생부, 청년부가 밥을 해서 교우들을 먹이는 사건은 그저 애들이 음식 솜씨가 늘었다거나 혹은 한 주 편안하게 애들이 해주는 밥을 먹는 다거나 학생, 청년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것은 형제를 먹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말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사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한 이상이나 가치를 지향하여 사회의 유지와 전진을 위하여 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있다. 교회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그리고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진 가치를 지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활동이 되겠다.

올해 '조이클럽'에서 대기명당 합숙 기간 동안 매주 한 번 언니 오빠들에게 음식을 해서 먹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의 여자아이들 세 명에서 15인분의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것이다. 참 좋은 교육이다. 이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진 교회, 언니 오빠들을 먹이는 일을 흔쾌히 함께 하는 조이클럽의 회원들에게 정말 고맙다.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2016년 먹이는 기쁨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고마움으로 문을 열었다. 시작부터 참 좋다. 엔젤(김연우), 테미스(정규현), 오늘(장연)아, 예가 교우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지만, 그냥 ‘복음(유양게리온)’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장목사님이 유카리스트가 ‘밥 먹을 때 하는 축복과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18 - 23
요한계시록 21:22 - 22:5
마태복음서 3:13 - 17

유카리스트의 ‘유’와 유양게리온의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계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라서, 대체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 받았습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 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오면 기뻐하겠습니까? 우렁각시? 우렁각시는 집안일을 해 주거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오면 기쁩니다. 하나는 내가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기쁘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나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오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지옥 갈 우리가 천당에 간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유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 주었으니, 병고에 시달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덕을 끼칩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신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그 자신이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는 어긋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그것 또한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다’고 전하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주 높아서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했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좀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덕을 끼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바로 그 세상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깨닫고 예수님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청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등장한 사건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단 자기 자신뿐 아니라 누구나 이스라엘 사



람이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이고 또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선언이 제2, 제3, 제4 ... 끝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진행형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고 계속될 것이라는 동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고유한 인격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렸던 신분과 자격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유명사로 이해하지 않고 일반명사로 이해한다면, 예수라는 일반명사, 보편명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듣는 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일,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일,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정말 바랐던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은 아마도 그 일이야말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원했던 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획득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천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상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누구나 반길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한 마리의 제비를 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비는 봄의 실체이고, 봄의 시작이고, 곧 나에게도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신분과 자격을 주었는데, 예수라고 하

는 사람이 누렸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양도했습니다. 그 삶은 마치 봄을 알리는 제비와 같아서 누구나 다 봄 하늘, 봄별, 봄 들판에 신나게 날아다니는 제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덕을 끼쳐서라기보다는 예수 자신이 받았던 삶과 예수 자신이 받았던 신분과 예수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모두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로 복된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기다렸던 분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비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 유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제비를 통해서 자기에게도 봄이 오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곧 그에게도 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을 우리에게 유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비가 우리에게 유용한 존재라면 우리는 제비를 키워서 팔거나, 제비를 잡아서 해충을 잡게 시키거나, 제비요리를 개발해서 잡아먹거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세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을 점점 더 유용한 존재로 바꾸어 먹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덕이 되고 유용하게 한 사건들이 복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년 전에 병자를 고쳐 주었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고귀한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이 천년 전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했다는 놀라운 희생이 아닌 혹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한 기적적이고 영웅적인 사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고귀한 왕의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한 마리의 제비를 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비는 봄의 실체이고, 봄의 시작이고, 곧 나에게도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입니다.



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좋아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날 때 어떤 기쁨으로 기뻐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예수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선포, 자기가 누리고자 했던 또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고귀한 삶,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기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또한 그 사람도 보편적인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였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만날, 또 나 이후의 수많은 예수들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리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은 크게 두 가지 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삶이 깨달아져 가는 것들, 자신의 삶을 통한 깨달음과 느낌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어짐으로써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가장 고상한 삶을 우리가 즐기면서 또한,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로 변모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삶으로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서 지금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 이 천년 전의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우리 앞에 나타날 새로운 예수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들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주는 감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힘써 생각해 볼 것이 기쁨과 감사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의 고상한 삶이 드러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동등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왜 기뻐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묵상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등장하는 다양한 예수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삶, 그 영적인 능력을 발견하시고, 일 년 내내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타임캡슐 속의 새해 이야기

화음가족 한가은 양세련

새해 신년집회에서 타임캡슐에 보관했던 나의 2015년 행복 이야기 쪽지를 별 생각 없이 펼쳐 보고 놀랐다. 바로 제일 첫머리에 샤론님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어지기를 청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을 적은 것은 기억했지만 제일 첫머리에 썼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자리의 맞은편에 우연히 샤론님이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새해 첫날부터 행복한 미소로 반짝반짝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도 자세히 나누지 못했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이야말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였다. 기분이 좋다. 그렇게 좋아진 기분으로 한 마디 말을 건넸다. 그 이상으로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쑥스러웠다. 그리고는 기쁨이 더 커질세라 조용히 쪽지를 다시 접어 넣었다. 그 것이 2015년 행복한 이야기의 에필로그였다.

기나긴 가방끈을 접어 넣고 직업전선에 나선지도 이제 십 년이 훌쩍 넘었다. 대학교 이후 이십여 년의 학창시절과 사회생활 동안 남은 것은 가는 곳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기억뿐이다. 교회의 가르침 덕분에 다행히도, 괴롭고 힘든 기억이나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으로 떠올리게 되어서, ‘응답하라 1988’이 한참 유행인 요즘 나는 나대로 응팔 드라마를 찍고 있는 기분이다. 사실 나의 응팔 미 촬영분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나와

상대방의 화제는 날씨와 취미, 가십거리를 제외하면 그다지 밝지만은 않았다. 직장에 서나 가정에서나 원하지 않는 일도 묵묵히 해야만 하는 현실을 한탄하다가 대책이 없다며 한층 더 한탄하는 것, 그 와중에 잘 되는 제3자는 원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운이 좋은 케이스라는 점을 밝혀내는 것, 그 경우가 되는 사람은 눈치껏 자랑하고 나머지는 한턱 얻어먹고 마지못해 축하해 주는 것. 나는, 상대방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교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혼자서만 중얼거리곤 했다. 그다지 기쁘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였다. 어느새 나는 험담 걱정그룹의 정회원이 되어 험담과 걱정을 즐기고 남몰래 질투하며 칭찬에는 인색한 ‘이방인’의 모습을 내 속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 안팎의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의 삶을 지속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버티다 못해 나는 드디어, 2016년 타임캡슐에는 남 잘 되는 꼴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싶다는 소망을 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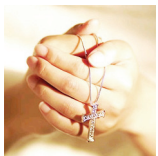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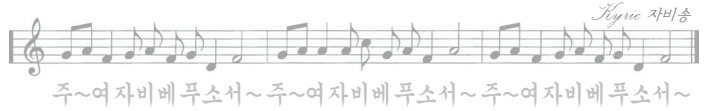
새해 첫날 신년집회에 뒤늦게 왔을 때 맑은님이 오전 강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 주셨다. 어쩐지 나의 소망이 실현될 것 같다는 느낌에 기분이 묘했다. 그리고는 틈틈이 오전 강의 녹음한 것을 찾아서 들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려면 험담걱정그룹에서 발을 빼고 덕담 그룹에서 덕담을 주도하라,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쁜 반응을 지금까지의 아홉 배로 크게 보이려, 한층 더 나아가, 예가 교인으로서의 참으로 기뻐할만한 일, 즉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라, 다른 교우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라,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적당히 쉬운 목표를 세워 실천하라!

강의를 여러 번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새해 첫날 망설이지 않고 샤론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다면 나의 소망은 이미 실현되었으리라는 것을. 괜찮다. 그래도 아직 일 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일 년 동안, 화음님이 그 바쁜 연주와 레슨 일정 속에서도 인도자 활동을 성실하게 해 내는 것을 기뻐하고, 신나님이 과로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호홉기도로 몸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고, 푸른님이 한 주 동안 사랑한 삶을 고운 글씨로 워크북에 기록하면서 가족들을 격려하는 것을 기뻐하고, 불꽃님이 즐겁게 일하는 한편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를 더욱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시원님이 가족모임 안팎에서의 역할들을 시원시원하게 해 내면서 예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교우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의 사랑하는 삶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도 아홉 배로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행복해 할 수 있기를. 부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주시기를.



주현절 첫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72편 1-7, 10-14절
소리내어 천천히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 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를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 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 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 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 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첫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악마의 유혹을 이기시고, 성령
으로 충만하여 희망 없는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세례
안에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
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
여, 오늘 하루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희
망 없는 세상에서 새 희망의 증인으로 사
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사도행전
5-6 / 7-8 / 9-10
11-12 / 13-14 / 15-16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문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
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
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
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
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72편 1-7, 10-14절
소리내어 천천히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 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를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 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 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 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 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76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38)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제자들의 정체성은 ‘예수’이다. 바울서신에서는 예수 대신에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다. 이 둘을 합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사는 이들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울이나 요한복음이 전하는 정체성의 문제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교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 불경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실상 예수님 자신도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불경스러운 존재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불경스러운 그 자체였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바울도 첫 교회들도 모두 불경스러운 존재로 여겨진 것이다. 이는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첫 교회들의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문제삼은 것일까?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일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유대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을 거의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교육 사이트 중에 하나인 ‘Judaism 101’ (www.jewfaq.org)에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다음

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중급 난이도의 교육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1) 메시아 (영어, messiah, 히브리어, mashiah 마쉬아크)는 유대교에서는 오래된 개념이다.

2)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훌륭한 인간 리더’ (great human leader)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그러하다. 메시아는 구원자 (savior)가 아니다.

3) 메시아가 언제 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다.

4) 성경은 메시아가 완수할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5)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언급한 메시아의 과제를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유대교 전통신앙에 속한다.

7) 유대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도생활 중, 하루에 세 번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셰모네 에즈레이’ (Shemoneh Esrei) 기도문에는 ‘오시는 메시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 첫째로,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고, 둘째로, 정의로운 종교법정이 회복될 것이며, 셋째로, 악함과 죄와 이단이 끝장날 것이며, 넷째로, 의인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다섯째로, 예루살렘

이 재건될 것이며, 여섯째로, 다윗왕의 계보가 회복될 것이고, 일곱째로, 성전에배가 회복될 것이다.

8) 현대의 유대교 학자들은 ‘메시아 개념’이 후기 유대교라 할 수 있는 예언자 시대에 형성된 것이며, 토라에서는 명쾌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오늘날 유대교는 아브라함 때부터를 유대교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신앙이 유대교로 정착한 것은 포로기 이후라고 보는 입장과는 확실히 다르다)

9)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교는 메시아 개념을 유대교 신앙의 주요한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10) 메시아는 문자적으로는 ‘기름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를 뜻하며, 왕의 대관식 때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전통적인 유대교는 ‘오시는 메시아’가 토라에 인용된 ‘마지막 날’ (the End of Days, 히, acharit ha-yamim 아카리트 하야밈)에 기름부음을 받게 될 자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에만 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 때에 가서 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신4:30)

11)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니



다. 메시아를 구원자로 정의하고, 그 구원자가 죄가 없고, 신성한 혹은 신성에 준하는 존재여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유대교 사상과는 무관한 입장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영어권에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구원자로 이해하는 뿌리깊은 기독교 전통이 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영어식 표현 ‘messiah’를 버리고, ‘mashiach’ (마쉬아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2) 어떤 이방인들은 ‘마쉬아크’가 ‘모쉬아’ (moshiah, savior 구원자)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순전히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일 뿐이고,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자음계열과 어원을 갖는 말이다. 즉, ‘마쉬아크’는 ‘Mem-Shin-Chet’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칠하다’ (paint), ‘바르다’ (smear), ‘기름붓다’ (anoint)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모쉬아’는 ‘Yod-Shin-Ayin’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돕다’ (help), ‘구하다’ (save)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마쉬아크’와 ‘모쉬아’는 자음 ‘Shin’만 동일하고 다 다른데, 자음 ‘Shin’은 대부분의 히브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자음이므로, ‘Shin’ 하나만으로 관련성을 논할 수는 없다. 특히, ‘모쉬아’의 ‘모’ 발음을 일으킨 ‘m’은 히브리어 동사가 명사화되는 과정에서 접두어로 붙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명령하다’ (command)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차바’ (tzavah)는 명사화되어, ‘명령’ (commandment)이 되면, ‘미츠바’ (mitzva)가 되는 것처럼 동사가 명사화되면서 ‘m’이 붙은 것이다. 그러나, ‘마쉬아크’는 애초부터 ‘m’이 붙은 자음을 가진 말이다.

13) 마쉬아크는, 예언자들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장차 위대한 정치적 리더가 될 사람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

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 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렘23:5) 그래서, 마쉬아크는 종종 ‘mashiach ben David’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도 불린다.

14) 마쉬아크는 율법을 바르게 하고, 그 명령들을 준수할 것이다.

“(2)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3)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4)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5)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사11:2-5)

15) 마쉬아크는 그의 모범을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위대한 군사적 리더이다. 그는 위대한 재판관이 될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다.(렘33:15)

16) 마쉬아크는 철저히 인간이며, 신이 아니다. 물론, 반신반인적 영웅도 아니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다.

17) 마쉬아크는 마쉬아크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으면 마쉬아크가 아니다.

18) 마쉬아크는 언제 오는가? 유대교 전통은 마쉬아크가 오는 때와 시기를 앞서 예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저주한다. 잘못된 예견은 오히려 마쉬아크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마쉬아크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그 날과 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고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마쉬아크를 간절히 필

요로 할 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뒤덮여 있거나, 선한 것을 갈망할 때에 마쉬아크는 반드시 올 것이다.

19) 마쉬아크가 오기 전에 전쟁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겔38:16)

20) 마쉬아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되돌려주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21) 마쉬아크 시대 (Olam Ha Ba, 올람 하바):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올람하바’는 ‘오는 세계’ (World to come)를 뜻하는 말인데, 영어권에서는 이것이 종종 ‘사후세계’로 오인되고 있다. ‘올람하바’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는 증오나 편협, 전쟁 따위는 없다. (사2:4) ‘올람하바’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연계의 질서도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며, 모든 소출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올람하바’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알레고리일 뿐이다.

22) ‘올람하바’가 이루어지는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되돌아 올 것이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던 나라들을 떠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 오게 될 것이다. (사11:11-12; 렘23:8; 30:3; 호3:4-5). 희년(Jubilee)이 회복될 것이다.

23) ‘올람하바’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며, 유대교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종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2:3; 11:10; 미4:2-3; 스4:9) 살인도 강도도, 질투로 가득한 경쟁도 없을 것이다. 죄도 없어질 것이다.(슥3:13) 성전에서의 희생은 감사절기에만 제한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올람하바에서는 아무도 죄 가운데 있지 않으니, 대속제 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상이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메시아’ (헬,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기름부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메시아라고 불려야 하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는 유대교 신앙에서 말하는 메시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은 일반적인 의미의 메시아와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메시아 앞에 정관사를 붙여 ‘하 마쉬아크’ (the Messiah)라 부른다. ‘하 마쉬아크’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은 철저히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신앙이므로, 혼동하지 않기 바란다. 즉, 유대교에는 ‘메시아’라고 할 때에,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메시아가 있고, 고유명사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메시아가 있는 것이다.

유대교는 ‘메시아’ (히브리어) 즉 ‘그리스도’ (헬라어)를 철저하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인간으로 이해한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구별되는 피조물로서의 인간 중에 메시아를 설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은 무엇인가?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가? 유대교는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히 구별하고, 메시아도 인간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공교롭게도 오늘날 유대교 신학자들과 기독교 신학자들의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

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이다. 신약성경의 입장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이 확고하고도 분명하다. 반면에 절대 다수의 유대교 랍비들은 1세기나 21세기인 지금이나 변함없이, 메시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 유대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메시아가 ‘사람’일 뿐이라는 선언은, ‘메시아’가 유대교에서는 ‘종’ (species)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한가?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애석하게도 모두 ‘종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논쟁이다. 즉,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메시아를 논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초자연적이고,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종, ‘신’이라 불리는 종의 차원에서 언급하는 경우들이다. 즉, 유대교나 기독교나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모두 현상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전했던 것은 ‘존재’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두 ‘현상’으로 전락시키고, 가둔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외모가 변형된다는 말이 아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도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 얼굴이 더 밝아진다가거나, 더 활기 있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날개가 생겼다가거나, 무거운 사물을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움직일 수 있다가거나, 축지법을 써서 며칠 거리도 단숨에 갈 수 있는 식의 변형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 계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했다. 예수님이 규정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사랑하라’ 혹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사는 존재이다.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리스도라 불릴 것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그것은 사랑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오늘날 유대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현실적인 나라와 유대인이라는 현실적인 민족을 배제하고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더욱 번영하게 하고, 하나로 모을 현실적인 정치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여야만 하는 것이다.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도 구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도 아니거니와, 주요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버리고, 메시아는 취했다. 그리고,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뛰어난 리더라는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이 점에서 유대교와 교회는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신약성경에 접근한다는 것은 완전한 오독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대기명당 겨울웍샵

진주 이인화

2016년 대기명당 겨울웍샵이 시작되었습니다. 통 크게, 당당하게, 밝게 자라고 있는 우리 대기명당 아이들의 겨울웍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기명당 서포터즈인 진주님의 글로 보겠습니다.



겨울 웍샵이 시작되었다. 이번 웍샵에는 신입이 2명이 들어왔고, 서포터즈도 새로 들어왔다.

입소식 때 콜라(이도원)와 하나(김정민)가 인사를 하는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올해는 어떤 웍샵이 만들어질까? 그 동안 겨울 웍샵은 여름과는 달리 길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해볼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어떤 내용일까?' 하며 웍샵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 목사님의 강의가 4회 이어지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요리수업과 보드게임과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학습프로그램으로는 영어에 집중해서 초아(이다은)님과 함께 미국 드라마 '프렌즈'로 공부하면서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대부분 선배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것이 프렌즈 대본을 함께 외우는 시간이었다고 하니 같은 즐거움을 가질 것이며, E900과 단어 독해 등 영어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독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비소설과 소설을 반반 섞어서 읽게 된다. 아이들이 독후감을 적은 것을 문서로 서류철처럼 보관하는데 두꺼운 책 두께를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독서량을 생각하게 되는데 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이 든다. 이번에는 한가온님이 고학년 독서 담당 서포터즈로

와서 아이들과의 새로운 사귄과 활동에 기대가 된다.

이번 겨울 합숙에는 하마(양동엽)님이 함께 하게 되어서 평소엔 킴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신 킴을 매일 맡아 주어 든든하고 고맙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쉬었다가 운동을 매일 가는데 이번에도 역시 권투를 하러 간다. 웍샵 때마다 권투를 하는데 도장에서 이번에는 레슨비를 깎아주기까지 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무리지어 운동하러 오는 아이들이 어찌 반갑지 아니하겠는가! 11명이 우르르 권투도장을 향해 가는 뒷모습을 교회 창으로 오래도록 내다보는 내가 이상한가? 흐뭇한 표정이 절로 나온다. 기특한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이번에 미얀마로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책을 통해 먼저 그 나라를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적고, 작은 일정과 교통비 등,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가며 여행 스케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여행은 대기명당의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로서 스스로 만들어낸 스케줄에 따라 여행을 한다. 물론 현지상황이 달라지고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계획에 따라 여행지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여행은 14명이 계획되어 있다. 또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낼

지 이번 여행도 기대된다.

매주 '통 크게, 당당하게, 밝게'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아이들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합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콜라와 하나를 보았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키가 부쩍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완전 착각이겠지만 내 눈에는 커 보였다.

교우들은 맛있는 밥을 먹고 목사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먹고, 아이들은 잘 먹고, 몸으로 자신의 약속을 먹고,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는 이번 겨울웍샵을 다 끝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분명 훌쩍 커 있을 것이다.



예가 소식 & 공지

오늘 사랑의 식탁은 화음가족이 대접합니다. 1월 봉헌위원은 샤론님입니다.

1. 지금은 주현절기입니다. 주현절기 동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시다.

2. 오늘 사랑의 식탁 후에는 스케줄 집회가 있습니다. 스케줄 집회는 주일에는 사랑의 식탁 후에, 수요일에는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스케줄 집회는 스케줄이 완성될 때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2016년 첫 목요기도회를 가졌으며, 대공합숙 기간 중에는 장소의 이동이 있을 경우, 예가공지방을 통해 공지를 하였습니다.

4. 신년집회 강의는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2016년 설인사는 2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설인사 후에는 율놀이 대회도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시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 주 예배위원은 화음, 시원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창세기 43장 ~ 창세기 48장
화	창세기 49장 ~ 출애굽기 5장
수	출애굽기 6장 ~ 출애굽기 12장
목	출애굽기 13장 ~ 출애굽기 19장
금	출애굽기 20장 ~ 출애굽기 26장
토	출애굽기 27장 ~ 출애굽기 32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